

국민통장 ISA 가입전 득실 꼼꼼히 따져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손실 발생해도 만기 도래하면 무조건 해지 등 주의를

국민통장이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 첫선을 보인다. ISA 도입 전부터 은행과 증권사들도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양상이다.

여러 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손익을 통산하는 ISA라지만 항상 수익을 보거나 세제상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전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등을 담아 운용하는 제도로,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의 15.4%보다 낮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ISA 최대 활용법 파생결합상품 가입...정부의 간접적 시장 활성화 정책

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군은 여럿이지만 추가연계증권(ELS)나 파생결합사채(ELB) 등 파생결합상품 등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

예·적금으로만 운용해도 무관하지만 수수료로 고려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분석이다.

결국 예·적금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산을 시장 쪽으로 풀기 위한 단초로 세제 혜택이 있는 국민통장이 제시된 셈이다.

이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묶여 있는 돈을 시장에 풀기 위한 간접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대까지 기준 금리를 낮췄지만, 지금은 예상만큼 시장에 흘러들지 않았다.

미국 금리는 최근 추축하고는 있지만 인

상이라는 방향성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가족 통화가 아닌 원화의 특성상 유로존과 일본과 같이 기준 금리를 낮춰 돈을 더 짜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경기 둔화와 시장 불확실성 확대 노골·자본 소득을 향상 시킬만한 적절한 방안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ISA를 통해 시장으로의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열 경쟁 속 타의에 의한 불안전 판매 우려...성향 요건 꼼꼼히 살펴야

자본시장에서 투자 상품의 수익률은 예측하기 어렵다. 더욱이 추천을 받아 가입했다고 한들 손실을 보게 되면 책임은 투자 판단을 한 고객에게 돌아간다.

한때 ELS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시장에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 항셱 중국기업지수(HSCEI·홍콩지수)가 잠종 7500선까지 주저앉으면서 수조원대의 원금 손실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이 금융사 직원들에게 ISA 유치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실적 압박에 내몰리게 되면 타의에 의한 불안전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성동구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박모(29)씨는 "1인당 100개좌 판매가 목표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대한민국 5000만인구 중 ISA 가입 대상자인) 근로자와 사업자가 많아봤자 3000만명 정도 될 텐데 이걸 가지고 30개 넘는 금융기관이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상품을 한 번에 담게 되는 ISA의 특성상 상품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이



전기차 퍼레이드

18일 개막하는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앞두고 지난 12일 오후 전기차 퍼레이드에 참가한 차들이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에 잠시 정차해 있다.

18일 개막하는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앞두고 지난 12일 오후 전기차 퍼레이드에 참가한 차들이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에 잠시 정차해 있다.

뤄질 지 여부도 미지수다.

창구 직원이 다뤄야 할 상품은 예·적금, 펀드, 보험, 카드는 물론 복잡하게 설계된 파생결합증권까지 수십 개에 달한다.

이 같은 이유로 무작정 창구를 찾기 보다는 고객이 자신의 투자 성향과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한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 가입해야 ISA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손실 발생해도 만기 도래하면 해지...기간에 따른 계획도 세워야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3.5년 만기의 제약도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ISA의 만기는 보통 5년이지만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때는 3년 만기가 적용된다.

이는 1~2년 동안 수익을 기록하더라도 만기 때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제 혜택이라는 ISA의 가장 큰 장점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대형은행 창구 직원 이모(31)씨는 "투자 상품을 담으면 중간에 이익이 나도 해지를 못 하고 만기 때까지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한다"며 "만기 때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자동 해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가입을 하려거든, 먼저 본인의 만기를 고려해 자산 운용 계획을 짜고 이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저금리 영향으로 자산운용사 순이익 최대치

저금리 기조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자산운용사들의 운용 자산이 800조원을 넘어섰다.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도 4700억원에 달해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등 운용 자산은 818조원으로 전년 대비 137조원 증가했다. 이는 20.1% 증가한 수치로 운용사들의 운용자산은 사상 최대치로 확대됐다.

자산 규모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도 4736억원으로 561억원 증가, 지난 2007년 5038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원은 저금리가 이어져 기관투자자들이 사모펀드 투자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늘리면서 운용자산이 증가,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으로 운용사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의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는 각각 421조원, 397조원으로 같은 기간 11.7% 30.6% 늘었다.

수탁고 증가로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수입도 늘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조786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들의 증권투자이익은 488억원으로 15.6% 증가, 기관비도 임직원 급여와 지급 수수료 등이 늘어 10.7% 늘어난 1조174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 운용자산과 투자수익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특정 국가와 시장, 자산으로의 몰림현상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자산운용사 93곳 가운데 순이익이 늘어난 곳은 50곳, 감소한 회사는 36곳이었다.

흑자를 기록한 회사는 73곳으로 전년보다 6곳 증가한 반면 운용사 20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갤럭시7 보조금, 최대 26만4000원 달해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7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26만4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공시 지원금을 책정한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10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최대 26만4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통신서비스업체들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5만원대 요금제에서 13만7000원~15만원8000원 사이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59' 요금제는 13만7000원, KT '네이티브선택599'는 14만3000원, LG유플러스 '뉴 음성무한 59.9'는 15만8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만원대 요금제에서는 SK텔레콤 '밴드데이터29'가 6만1000원, KT '네이티브선택29' 7만2000원, LG유플러스 '뉴 음성무한 29.9' 7만3000원의 공시 지원금을 책정했다.

고가인 10만원대 요금제의 경우 이동3사 모두 20만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SK텔레콤 '밴드데이터100'은 24만8000원, KT '네이티브선택 999'는 23만7000원, LG유플러스 '뉴 음성무한 비디오100'은 26만4000원을 책정했다.

한편 갤럭시S7 출고가는 88만6000원(32GB)으로 전작 갤럭시S6보다 2만2000원 저렴하다. 갤럭시S7(64GB) 출고가는 88만원이다.

갤럭시S7 엣지는 5.1인치 갤럭시S7보다 큰 5.5인치로 나온다. 갤럭시S7 엣지 출시가격은 92만4000원(32GB), 96만8000원(64GB)이다.

구독신청 288-9700

오늘 화이트데이, IT 기기를 선물하세요

포터블 스피커 · 미니빔 등 생활 기기 주목

14일 화이트데이에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IT기기가 주목받고 있다.

우선 향 좋은 아메리카노가 담긴 듯한 텀블러 모양의 LG전자 포터블 스피커 360가 눈길을 끈다. 한 손에 쏙 잡히는 슬림한 디자인에 상단을 터치하면 스피커와 조작용이 올라오는 이색스피커다. 제품명처럼 둥근 디자인 덕분에 360도 어느 방향에서도 고음질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최대 2개 스마트기기와 동시에 연결해 번갈아 플레이한다.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답게 한번 충전으로 최대 20시간 연속 재생된다. 스마트폰 충전기인 마이크로 5핀 충전기

로도 간편하게 충전된다. 색상은 화이트, 핑크, 블루 등 3가지다.

화이트데이에 영화를 보기로 했다면 LG전자 미니빔 PF5500이 있다. 스마트폰과 USB에 저장된 웹 드라마나 영화를 블루투스 연결해 물건의 오묘한 시네마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홈시어터, 스피커, 카 오디오 등과도 연결되므로 어디에서든 양질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카시오 ZR55도 화이트데이에 선물로 적합하다. 지난 1월 출시된 콤팩트 사이즈 ZR55는 ZR50 후속작으로 파워더 팩트보다 작지만 셀카(셀피)를 찍을 때

뷰티효과를 극대화한다. 촬영된 사진의 스마트폰 자동 전송기능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간편하게 포스트 할 수도 있다.

색상은 여성들의 취향을 고려해 파스텔 톤 화이트, 핑크, 민트 3가지로 나왔다.

한국후지필름의 '피켓링크'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프린트할 수 있는 모바일 포토프린터다. 화사한 핑크 컬러가 돋보이는 디자인과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휴대성을 높인 작고 가벼운 무게가 장점이다.

계좌이동서비스 50대 이상 최대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신청을 했던 연령층은 50세 이상 중장년층들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2일차 이후 8영업일 동안 일평균 16만건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30일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서비스 2단계를 통해 계좌를 변경한 경우도 20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좌를 변경한 금융소비자들의 연령대는 ▲30대 이하 22% ▲40대 33% ▲50대 31% ▲60대 11% ▲70대 이하 3% 등이었다. 계좌를 변경한 금융소비자들의 약 90%는 창구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서비스 이용 방법 관련 문의를 하는 것 이외의 피해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